

‘내 손안의 미술관’ 모바일 미디어아트

이이남씨 13일부터 선미술상 수상전
아이패드·스마트 폰 활용 작품 전시

세계 최초 ‘앱’ 전시회 해외 반응 폭발적
홍콩·인도·프랑스 전시도 준비 중



미디어 아트작가 이이남씨가 이번에는 아이패드를 활용한 모바일 작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모나리자’의 등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인왕제색도’의 산 속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만종’의 지평선 너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온화한 모나리자의 미소 뒤에는 전쟁이 도사리고 있다. 인왕제색도의 산 속에서는 모네의 ‘풀밭 위의 식사’에 등장하는 외국인들이 다정하게 식사를 하고 있다.

또 밀레의 ‘만종’ 속 들날 너머에는 쇠라 작 ‘아니에르에서의 물놀이’에 등장하는 소년이 한가롭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의 상상력이 만들어 낸 명화 속 또 다른 명화의 모습이다.

12일 오전 전시회 준비가 한창인 이이남의 작업실에는 여느 화가의 방과는 달리 화구와 조각 도구 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는 20여대의 컴퓨터와 수십 여대의 LCD 모니터와 아이패드, 스마트폰으로 동서양의 고전을 자르고, 편집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들 디지털 기기를 통해 애벌레들이 굶아 먹고 남은 나뭇잎의 생채기는 고흐의 자화상으로 변하고, 9·11 테러로 무너진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센터의 폭염은 동양화의 아름다운 산수로 변했다.

그는 고전 작품을 LCD 모니터 속에 넣은 뒤 원래의 그림이 움직이고, 주변에는 눈이 내리게 하는 등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실험 정신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작가다. 디지털 애니메이션 등 첨단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인왕제색도에서 꽃이 피고, 나비와 새가 날아들며 눈까지 소복소복 내리는 환상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가 이번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전시회’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제22회 선미술상(설치 및 디지털 테크놀로지 부문) 수상기념으로 13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선화랑(대표 김창식)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그는 아이패드 등을 통해 구현되는 다양한 모바일 작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선미술상’은 35~45세의 국내 작가 중 독창적 작품세계를 창출한 작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에 설치 및 디지털 테크놀로지 부문이 처음 추가됐고, 미디어 아티스트로는 이이남이 처음 선정됐다.

지난달부터 아이패드에 ‘이이남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5점의 작품을 공개했고, 프랑스, 미국, 영국 등지에서 아이패드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전시회를 감상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이번 모바일 앱 전시회에 대한 해외의 반응도 폭발적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가장 다운로드를 많이 받은 앱으로 선정됐다. 이달 말에는 스마트 폰에도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는 이번 전시를 통해 아이패드와 스마트 폰을 활용해 전시

회를 여는 최초의 작가로 기록됐다.

10여 년 전 가족이 마련해 준 5000만원으로 첫 디지털 작품을 만들었던 그는 최근 세계적인 컬렉터 울리시그(스위스)에게 작품을 판매하는 등 국제 화단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뉴미디어아트 고전회화와 현대 매체의 조우’를 주제로 특강을 했고, 제3회 대한민국미술인상 청년작가상을 받았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작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내년까지 스케줄도 빼곡하다. 올해말에는 난징비엔날레와 인도 미술관 ‘동방의 불빛’ 그룹전, 국립중앙박물관 ‘명·청회화전’에 참여하며 내년에는 홍콩 아트센터와 프랑스 생피에르 미술관 개인전도 준비 중이다.

이씨는 “디지털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환영’을 만들고, 이를 통해 새로운 상상력을 만들어 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조선대 미술대학과 대학원, 연세대 영상대학원 출신으로 ‘아트퀵 2008’ 한국 작가로 선정됐다. 지난해 미국 스포스미언 미술관 한국관 개관 기념 초대전, 독일의 미디어 아트 전시장인 ZKM에서 전시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비닐하우스 극장에서의 즐거운 만남

테너 최승원 공연 이어 13일 배종옥과의 시간
영상으로 만나는 클래식 산책 등 프로그램 다채



‘문화가 흐르는 비닐하우스 극장’ 광주문화재단 대극장 앞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극장 ‘폴뿌리’에 문화 향기가 가득하다. 광주공연예술재단이 설치한 비닐하우스 극장은 오는 16일까지 계속되는 2010 광주국악공연예술제 기간 동안 다양한 공연과 영상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간이다.

지금까지 이곳에서는 청소년 마당극단 나르샤의 ‘달빛 무대에 서다’, 재즈피아니스트 박종화와 함께 하는 ‘재즈 음악이야기’, 탕고 워크숍, 테너 최승원 공연 등이 펼쳐졌고 연극배우 윤동환, 일본의 연극인 스즈키 다다시 등도 시민들과 만남을 가졌다.

13일 오후 4시30분에는 연기와 배우 배종옥(사진)이 시민들과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배종옥은 이날 만남에서 광주를 찾은 소감을 비롯해 그동안 선보였던 연기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또 포토타임도 진행한다.

중앙대 연극영화과 출신인 배종옥은 ‘내 남자의 여자’, ‘꽃보다 아름다워’ 등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했으며 최근 종영한 ‘김수로’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를 선보였다. 또 올 초에는 테니스 윌리엄스 원장의 연극 ‘육방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블랑쉬’ 역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차기작은 SBS 새 일일드라마 ‘호박꽃 순정’으로 이 작품에서 주인공 준선 역을 맡아 팝스타로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그밖에 비닐하우스 극장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대기 중이다. 13일에는 시네마 클럽 ‘호프만의 이야기’(5시~6시30분)와 타파넬 플루트 앙상블 공연(6시30분~7시)이 기다리고 있으며 14일에는 같은 시간에 ‘영상으로 만나는 클래식 산책’과 TOP목관 5중주단 공연도 준비 중이다. 또 15일에는 시네마 클럽 ‘밥 포시의 맨

상’과 로고스 현악 4중주단의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예술제 마지막 날인 16일 오후 8시20분부터는 폐막식이 열린다. 한편 비닐하우스 극장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계속되는 전국무용제 행사 기간에도 공연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문의 062-511-1260. /김미은기자 mekim@

현대인들의 정신적 성숙·존재감 일깨운다

해남 땅끝 미항사 23일 패블제·산사음악회

해남 땅끝마을 달마산에 위치한 미항사(주지 금강스님)가 오는 23일 오후 1시부터 패블제와 산사음악회를 연다.

불교의 종합예술행사인 패블제는 일종의 길게그림인 패블 탕화를 야외에 내걸고 배우는 불교의식으로 전통식상차림과 불교음악, 깨달음의 설법을 통하여 현대인들의 정신적 성숙과 존재감을 일깨우게 하는 축제다.

미항사 패블제는 조선 영조 3년(1727

년) 7명의 스님이 조성한 것으로 높이 12m, 폭 5m에 이르는 대형 불화(佛畵). 1992년 보물 제1342호로 지정됐다.

이날 미항사에서는 농사의 결실인 공양을 올리는 만법공양을 비롯해 100여 개의 북을 일제히 울리는 소리공양, 떡과 차를 나누는 만발·만등공양, 통천, 법어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패블제에 이어 이날 오후 6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해남부녀농요와 강강술

래 등 지역 주민들의 놀이판과 지리산 약양동네밴드, 한국가곡협회, 소리꾼 이병재, 가수 허실재 등이 참여하는 제11회 ‘작은 음악회’도 열린다.

또한 패블제와 더불어 옛문양 그리기, 미항사 천년 역사길 걷기, 두리차 시연, 밝음은 산사의 이야기 등 참여행사와 정은아의 조각보 전시, 미항사 아름다운 사진전 등이 부대행사도 함께한다.

한편, 미항사는 행사기간 1박2일 템플스테이도 가질 예정이다. 문의 061-535-2706. /김대성기자 bigkim@

광주전남 국악동호인경연대회

17일 문예회관

광주국악협회(회장 이대휴)가 주최하는 제3회 광주 전남 국악동호인경연대회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광주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경연 대회는 학생부와 일반부(수수 아마추어)로 나뉘어 진행되며 경연 분야는 남

도창·기악 기악(판소리, 민요, 가야금병창, 단막극, 산조, 정악), 전통춤(살풀이, 검무, 교방무, 일출, 부채춤, 화관무 등), 농악(사물놀이, 설장구, 북, 소고) 등이다.

지난해까지 55개 350명이 참여하는 동호인 축제로 진행됐으며 올해부터 경연방식으로 전환했다.

접수 마감은 15일 오후 5시까지이다. 학생은 참가비가 없으며 일반은 2만원이다. 문의 062-524-83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www.geumssoojang.com

이런 모임은 어디가 좋을까?
호남 제일 한정식 아리랑 하우스 가 여러분의 가까이 있습니다.

2인실부터 대형 연회장까지 다양한 접객실과 연회장 세미나를 위한 빈프로젝트, 음향 설비 완비 상건례, 회갑, 고회연 등 가족모임과 회식, 설명회 등 각종 모임에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여름 보양 메뉴 : 굴비정식, 삼계탕, 장어정식

☎ 금수장관광호텔 예약 게임홍 홀플러스 건너편
아리랑 하우스 문의 525-2111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영화와 함께!!

<p>상무점</p> <p>1관 방가?방가! (12세)</p> <p>2관 마루밀아리에티/퀴즈왕</p> <p>3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p> <p>4관 시라노-연애조작단 (12세)</p> <p>5관 해결사 (15세)</p> <p>6관 슈퍼데드(전제)/아저씨 (18세)/레지던트윙(18세)</p> <p>7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15세)</p> <p>8관 슈퍼데드(전제)/적인결-축천우후의 비밀 (12세)</p> <p>9관 무적자 (15세)</p> <p>10관 적인결-축천우후의 비밀 (12세)</p>	<p>아남점</p> <p>1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p> <p>2관 해결사 (15세)</p> <p>3관 방가?방가! (12세)</p> <p>4관 슈퍼데드(전제)/레지던트윙(18세)</p> <p>5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15세)</p> <p>6관 무적자 (15세)</p> <p>7관 시라노-연애조작단 (12세)</p> <p>8관 슈퍼데드(전제)/시라노-연애조작단 (12세)</p> <p>9관 아저씨 (18세)/해결사 (15세)</p> <p>10관 적인결-축천우후의 비밀 (12세)</p>
--	---

향토사랑! 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호남최대주자랑 /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아남점 동시개봉!!

MEGABOX

M관 시라노-연애조작단(12세) 최고급관
2관 적인결-축천우후의 비밀(12세)
3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18세)
4관 해결사(15세)/시라노-연애조작단(12세)
5관 레지던트윙(18세)
6관 방가?방가! (12세)
7관 마루 밀 아리에티(전제)/무적자 (15세)
8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9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자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511-1000

CINUS

1관 시라노-연애조작단(12세)
2관 적인결-축천우후의 비밀(12세)
3관 방가?방가!(12세)/레지던트윙(18세)
4관 해결사 (15세)/아저씨 (18세)
5관 슈퍼데드(전제)/무적자 (15세)
6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18세)
7관 레터스 투 줄리엣 (12세)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